

史 籍 巡 禮

白 麟

(서울대附屬圖書館)

本稿는 成均館大學校附設 司書教育院의 韓國書誌 科目에서 다룬 講義案의 一部이다.

本 講義 內容의 作成에 앞서 本人은 1966年 10月 14~17日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에서 同校 開校 20周年 記念行事로서 開催된 貴重圖書展示會의 出品圖書 解題를 作成하였는데 그 內容이 너무나 貧弱하고 또한 調査의 未備로 因하여 誤謬가 많이 發見되기에 同 講義中에서 그 內容을 敷衍 訂正하였다.

그러나 그 分量이 적지 아니하므로 一時에 모두 掲載하기가 어려워 分別하여 여기에 紹介코자 하는 바이다.

古圖書의 國別書誌를 作成함에 있어서 우선 생각되는 것은 史籍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文化的 史實이 歷史書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從來로 우리나라의 史籍에 對한 書誌의 研究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들은 本文의 確立을 爲한 보다 專門的이고 學術的인 面에서 檢討된 論文이기 때문에 一般의 理解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個別的인 것이므로 全體를 綜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圖書館人의 立場에서 보건대 專門家가 아닌 一般人도 理解할 수 있는 보다 平易한 解題書가 必要하다.

그러한 생각에서 筆者는 여기에 三國時代의 歷史書 三種을 들어 紹介하여 본 것이니 同學 諸位는 이 點 널리 省察 淺學한 點에 對하여 指導 鞭撻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史 體>

우리가 史籍을 다루는데 있어서 標題事項이나 기타 書誌의 事項에 對한 詳細한 情報을 알고 있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또한 古來로 부터 傳해져 내려오는 歷史書의 編纂方法 即 史體에 對한 어느 程度의 理解를 가져야함은 史籍을 다루는 人으로서의 常識이라 하겠다.

原來 史라고 하는 말은 옛날 天子 또는 諸侯의 左右에 侍衛하면서 그 言行을 記錄하는 者에 對한 官名이었던 것이다. 中國에 있어서는 上古때 부터 史官制度가 있었던 것이니 史官은 王 또는 諸侯의 御駕에 扈從하면서 그 言行을 記錄하는 것을 主된 任務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歷史를 編纂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中國에 있어서 數代 或은 王朝의 歷史가 編纂

된것은 書經에 비롯되며, 史라는 名稱이 書名으로 轉化된 것은 司馬遷의 史記에 비롯된다. 그리고 어느 時代 어느 王朝의 史로서 使用된 것은 南史 및 北史에서 부터이다.

<記 言 體>

中國의 上古史는 尚書(一名 書 또는 書經이라 呼稱된다)인바 이는 中國의 古代 即 夏 殷(商나라) 周 三代의 史官에 의하여 記錄된 바의것을 孔子가 編成한 것이다.

말할것도 없이 이는 千年 以前의 事實의 記錄으로서 一種의 歷史書인 것이다. 그러나 그 內容으로서 掲載된 바는 典(典則常法 即 五常時의 堯典 舜典) 謨(大謨 即 夏의 第1代 大禹의 謨 第15代 皐陶의 謨) 訓(教導 即 商나라의 伊訓) 誥(商나라 湯王의 諭誥) 誓(誓告) 命(命令)等으로 政敎의 大義를 明示함에 充分한 聖君 賢臣의 記錄을 記錄한 것으로서 그 編纂 目的이 後世의 君主나 相臣이 國家經論을 行하는데 있어서 模範으로 삼게 하였던 것이니, 史籍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敎訓書에 가까운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四部法에서도 이 尚書를 史部에 두지 아니하고 三經(詩, 書, 易)中의 하나로서 經部 即 經書의 列에 둔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책은 經書中에 列位하나 그 內容의 性質로 보아 이는 明確히 하나의 歷史書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昨今の 史家들은 古今의 史體를 論하며 있어서 이 史體를 「記言體」라 부르고 있다.

<編 年 體>

四部體의 經部에 列位한 春秋도 實은 中國 春秋時代의 歷史書이다. 即 魯나라의 史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同國의 記錄을 뒤에 孔子께서 嚴正한 識見으로 이에 削筆 或은 修正을 加하여 編纂한 것이다.

孔子는 己憚없이 直筆히하고, 是非順逆을 正確히 하고, 褒貶의 意를 明確히하여 後世에 君臣이 善惡을 잘라 事行하는데 敎範으로 삼게 하였다.

옛말에도 있드시 孔子가 春秋를 作하여 亂臣賊子를 懼하였다는 말은 이일을 가리켜 한 말이다. 要컨대 이는 事實을 主로 하여 編纂한것이니, 史論家는 尚書 即

記言體에 對하여, 이를 記事體라 부른다.

또한 孔子가 春秋를 記述함에 있어서, 單至 事實을 直筆하는데 끝이지 아니하고, 事實을 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年度를 別하고, 月을 繫하였으며, 그위에 春夏秋冬의 季節로도 表示하였다.

이는 確實히 事實을 記錄하는데 年次와 季月을 重要視하였다는 것은 劃期的인 일인바, 史論家는 이 春秋를 가리켜, 編年體라고 한다. 그러나 編年體의 編纂方法은 孔子로써 그 祖宗을 삼게 된다.

그러나 이 春秋도 治國에 있어서 善惡을 勸懲하는데 教範을 삼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四部體의 目錄에서 이를 史部에 두지 아니하고 經部에 列位하게 된 所이다.

이 春秋는 그後 戰國時代에 이르러 公羊高, 穀梁赤, 左丘明 等 三代에 各己 傳을 作하여 그 義를 說明하였는데, 公羊高가 만든 것은 「春秋公羊傳」, 穀梁赤의 것은 「春秋穀梁傳」이라고 하는바 二氏는 單至 그 뜻을 釋義하는데 主力하였다. 이에 反하여 左丘明의 것은 「春秋左氏傳」이라고 하는바 前二와는 달리 左氏는 記事의 正確에 盡力한 때문에 春秋左氏傳은 史學上 그 價値를 가장 높이 評價받으며, 따라서 가장 널리 盛行되었다. 그리하여 史論家들은 左氏傳을 編年體의 正統으로 한다.

要컨대, 編年體를 春秋로써 그 祖를 삼는다는 異論이 없으며, 또한 이 編年體를 들어 史體의 始初로 하고 있는 學者도 있다.

<紀 傳 體>

中國 前漢의 孝武帝時代에 이르러 司馬遷(字는 子長)이 太史公으로 稱되자, 父親의 뜻을 이어, 有明한 史記 130篇을 著作하였다. 그런데 그가 史記의 編纂에 있어서는 從來에 없던 體裁의 新機軸을 案出하였다.

即 그는 史實을 다음과 같이 五部門으로 나누어 記錄하였는바, 이 體裁를 史論家는 이름하여 「紀傳體」라 한다. 이제 그 內容의 成立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本紀12篇: 帝王, 后, 妃의 事蹟을 叙하였다(前漢書, 後漢書에는 共히 后妃의 것이 실려 있다. 그러나 晉書以下에서는 后, 妃는 列傳에 넣고있다.)

表 10篇: 宗室, 諸王, 相臣, 功臣, 年歲等を 錄하였다.(後漢書 부터 南北朝史까지는 이것이 없다. 新唐書以下는 表가 있다.)

書 8篇: 禮, 樂, 律, 曆, 天文, 封禪, 河渠(治水) 平準等を 叙錄하고 있다.(前漢書以下는 志라 한다. 또 食貨 五行 地理 藝文等の

目을 設置하였고, 三國志부터 南北朝史까지는 이것이 없다.)

世家30篇: 諸侯의 興亡을 叙錄하였다.(世家는 史記에 단 있고 前漢書以下는 이것이 없다.)

列傳70篇: 著名個人의 事蹟과 또한 周圍의 異種族의 事蹟을 叙錄하였다.(史記에는 匈奴, 東越, 南越, 朝鮮, 西南夷의 各列傳이 個人列傳의 中間에 들어있다. 그中 朝鮮列傳은 衛滿朝鮮에 就한것을 記하고 있으며, 前漢書의 朝鮮列傳도 이와 같은 것이다. 陳壽의 三國志에 이르러 처음이므로 東夷傳이 있어 그中에 扶餘 高句麗 沃沮 提婁 獫狁 韓 倭人等도 記述되어 있다.)

이와같이 部門을 設定하여 歷史를 記述하는 編纂方法을 史論家는 紀傳體라 하는바, 그 創始者는 司馬遷이며, 그것은 史記에 始初한다.(四部法에서는 史記부터 史部에 넣고 있으니 中國의 學者는 事實上 中國의 歷史를 이 史記에서 부터라고 말한다.)

<紀事本末體>

宋의 袁樞가, 司馬光의 資治通鑑을 根據로하여, 資治通鑑紀事本末 42卷을 撰述한것이 이 史體가 最初로 採用된 例라고 한다.

이 體는 어떤 重要事實을 中心으로하여 그 本末을 記하고 있으므로 그 事實의 原因과 結果를 究明하는 데는 極히 絶好한 形式이라고 한다.

以上에서 說明한 것中 編年 紀傳 紀事本末을 一般의 所謂 歷史의 三體라고 하는바 이 中에서도 紀傳體만은 所謂 歷史의 「正史體」라 하여 國家에 의하여 編纂되는 歷史書는 흔히 이 體가 比較의 많이 採用되었다.

그런데 晁公武의 郡齋讀書志에 의하면 史體의 種類에 對하여 多小 그 趣意를 달리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後世史를 記述한 것 그 體가 三이다」라고하여, 編年, 紀傳 및 實錄의 三體를 들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時代에 있어서 紀事本末體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實錄體를 包含하여 三體라고 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實 錄 體>

以上 說明한 史體外에 「實錄體」라 稱하는 史體가 또 하나 있다.

이것은 詳細하게 記錄된 日記體의 歷史書로서, 그 內容의 編制로 본다면 一種의 編年體에 지나지 않는것이 아니라, 이 實錄에는 往往 志(世宗實錄地理志)表 또는 傳을 따로 가지고 있는 境遇가 있다. 그러므로 이 實錄體는 嚴密히 말한다면 編年 紀傳의 兩體를 合친 하나

의 史體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實錄은 一種의 記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春秋館 史館 또는 實錄廳에서 前王時의 朝報나 時政記에 의하여 編成된 國家記錄으로서 이는 後世에 正史를 編纂하는데 있어서 根據資料가 되어왔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所謂 編年體와는 多少 그 趣意가 다르다.

前言한 바와같이 各種의 史體는 中國에 淵源하였음을 알 수 있거니와 이 日記體인 實錄의 編纂法도 中國에서 비롯되었을 것인즉 그것은 어느때 부터 始作되었을까? 궁금하게 생각치 않을 수 없다.

이에 對하여 晁公武(宋)의 郡齋讀書志에 依하면,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實錄은 그 名稱이 蕭梁에 起因하며 唐代에 이르러 盛行되다. 編年 및 紀傳의 兩體의 方法을 조합하여 取하여 만든것으로서, 史官이 採擇에 依하여 갖추어진, 처음부터 製作에 뜻을 두고 만든것은 아니니 곧 證憑할 만한것은 못된다.」라고 評하였다.

이에 依하여 實錄이란 名稱이 中國의 南朝(420~589) 梁(武帝의 姓이 蕭氏이기 때문에 蕭梁이라고 한 것이다.)에서 始初된 것임을 알 수 있거니와 더욱이 隨書 經籍志에 梁皇帝實錄이 二種類(하나는 武帝實錄, 다른 하나는 元帝實錄)가 記載되어 있는 것으로서 梁皇帝實錄이 있었음을 證明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現今에 存在하는 바의 實錄은 唐의 房玄齡撰의 唐高祖(618~626) 實錄보다 以前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高麗以來로 春秋館과 藝文館을 常設하고 史官을 두어 날마다 時政을 記錄하였으며 한 임금의 昇遐하던 그 다음 임금때에 반드시 前王 時代의 歷史를 編纂하여 이를 實錄이라 하고, 特別히 設置한 史庫에 奉安하여 貴重하게 간직하여 왔었다. 高麗王朝의 實錄은 朝鮮王朝 初期에 烏有에 돌아가고 말았다.

實錄이란 名稱과 日記體의 記錄이 생기기 前에는 起居注라 하는 記錄이 있었던 것이다.

即, 隨書에 依하면 「起居注者 錄紀人君言行動止之事」라 한것으로 알 수 있거니와 그것은 가장 가까운 侍臣에 依하여 記錄되었던 것이니 李朝時代에 承政院에서 記錄된 承政院日記와도 같은 것이라 하겠다. (承政院日記에는 注書, 假注書라는 名稱이 보이나 이는 起居注者와 같은 것이다.) 隨代 以來 秘書省에 따로 官吏를 두고 이 일을 맡게 하였던 것이다.

「隨書經籍志」에는 옛부터 起居注 四十部 舊唐書(二百卷 : 처음에는 唐書라 하였으나 新唐書가 나오므로 해서 舊唐書라 한다. 五代石晉의 劉昫等의 奉命撰이라고 함)

新唐書(二百二十五卷 : 舊唐書를 改修한 것을 말한다.)에는(本書는 歐陽修等의 撰한 것이다.) 各各 二十九部를 열거하고 있으나 其中 가장 오래된 것은 穆天子傳(本書는 周의 穆王이 西王母에 行幸한것을 記錄한 것임) 六卷과 「漢獻帝常起居注」이다.

그러나 오랜 歷史를 거쳐 내려오면서 그 大部分이 亡失되어 없어지고 清朝 康熙帝의 「欽定四庫全書總目」에는 現存하는 것으로서 다만 「穆天子傳」 六卷과 溫大稚의 「大唐創書起居注」 三卷 뿐인 것으로 되어있다.

其中 「穆天子傳」은 그 體裁가 年月順의 編次이므로 起居注의 形式을 갖추고 있으나 그 內容이 小說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信憑하기에 不足하다.

따라서 溫大稚의 「大唐創業起居注」가 唯一한 것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四庫全書總目」에 있어서는 이 一種을 爲하여 別途 一問을 特設할 수 없으므로 體裁上 가장 가까운 編年體의 史籍에 併合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김	부식
	三國史記, 金富軾(高麗)李宣慰 [跋, 大正3年(1914)] 50卷 9冊, 木版本. 26.3x21cm 四冊單近, 半葉五廓: 19x17.2cm. 有扉. 99行, 113(18字). 跋心: 大黑口上下黑魚尾. 卷末: 諸本... 金富軾(年號[高麗]) : 甲戌(1334)... 金居升跋. (玉山書院 田村에 依한 古典刊行會의 影印本임)

<三國史記>

高麗仁宗 23年(1145) 金富軾이 王命을 받아 司馬遷의 「史記」의 體裁를 본 따서 쓴 三國, 新羅統一期를 통한 유일한 最高의 歷史書이다.

金富軾等이 王命에 依하여 古記, 遺籍 혹은 中國의 諸史에서 뽑아 紀傳體로서 편찬한 三國의 唯一한 正史이다.

三國史記의 目次는 다음과 같다.

- 第 1~12卷 新羅本記
- 第13~22卷 高句麗本記
- 第23~28卷 百濟本記
- 第29~31卷 年表上·中·下
- 第32~40卷 志第1~志第9
- 第41~50卷 列傳第1~列傳第10

盧思愼은 史記의 記事에 重複되는 內容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紀傳體이기 때문에 그리 안될 수 없다.

예컨대 한 事件에 있어서 高句麗, 百濟, 新羅, 三國 이 다 같이 關聯된 것이며 각己 그 本記에 같은 記事 가 실리게 될 것이며, 不料의 不足으로 本記의 부피를 많게하기 위하여서도 적지않은 無理가 있는 것은 事實 이다.

그러나 이것은 三國史의 正史로서는 唯一한 것임을 일아야 한다.

史記의 刊本은 大體로 아래와 같은 3 種類로 大別하 여 볼 수 있다.

- A. 高麗本 < 木版本(初刊本)
- B. 李朝本 < 寫本
 - < 木版本(太祖 3年刊本) 中宗 7年刊本)
 - < 活字本
- C. 最近本 < 活版本
 - < 影印本

A. 高麗時代에 印出된 版本이 몇 種類가 있었는지 하나도 傳하지 아니하므로 알 수 없으나 그것은 木版本과 寫本이 流行하였던 것은 確實하나 王應麟(宋)의 玉海에 보면 本書가 淳熙元年(高麗明宗 4年) 宋의 秘閣中에 들어있음을 말하였고 또 史記가 奉命撰인 것으로 보아 初刊本은 撰進直後에 即時 刊印하였으리라 고 생각된다.

그런데 李朝太祖 3年 慶州府使 金居斗의 三國史記跋에 「三國史印本之在鷄林者歲久而泯, 世以寫本行」이라 한 것을 보면 三國史記印本은 高麗 어느때의 印本을 가리켜 말한것인지 자제치 아니하나 史記의 高麗印本은 이 때에도 이미 稀貴하였던 모양이며 一般은 寫本에 의하여 考據하였음을 알 수 있다.

B. 李朝本은 이를 역시 大別하면 木版本과 鑄字本의 2 種類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중 木版本은 太祖 2, 3年頃 慶州府使 陳義貴, 金居斗 등이 前後相繼하여 開刊한 것을 비롯하여 中宗 7年 慶州府使 李繼福에 依하여 重刊된 3種이 있는데(이 重刊本은 거의 前者의 補刻本으로 推測됨) 前者는 勿論 後者의 傳本도 매우 稀貴하다.

그 다음 鑄字本에는 역시 前後 두 種類가 있는데 모두 그 刊行年代가 末詳하나 版式에서 보건대 하나는 顯宗 또 하나는 英宗時代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C. 最近本中에는 活版本과 影印本の 二種類가 있다.

活版本에는 朝鮮古書刊行會本, 東京帝國大學本, 朝鮮光文會本, 朝鮮史學會本이 있고 影印本에는 慶州 玉山書院本(舊木版本)을 影印한 古典刊行會本이 있을뿐 이다.

1956년에는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에서 三國史記 索引이 간행되었고 李丙燾의 譯註本(一潮社刊)이 출간되었으며 金鍾權의 完譯本(先進文化社刊 1961年)이

있다.

문헌 李弘植 三國史記의 “租”의 用法(서울大學校 論文集人文社會科學 2)

李允鉉 三國史記 地理誌의 研究抄(高鳳 1~1)

津田左右吉 三國史記高麗紀의 批判(滿鮮地理 歷史報告 9) 同三國史記의 新羅本記に 就いて (古事記及 日本書紀の 研究)

金富軾(1075 文宗 29)~(1151 毅宗 5) 高麗 仁宗때 명신 사학가. 자는 立之, 호는 雷川, 시호는 文列, 본관은 경주, 左諫議大夫 金顛의 아들 부일의 형. 숙종때 과거의 급제, 한림원에 들어갔고 左司諫, 中書舍人을 역임 인종이 즉위하여 李資謙이 왕의 外祖父로서 권세를 잡자 君臣의 예를 논하여 자경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견에 따르게 하였고 朴昇中, 鄭克永과 함께 睿宗實錄을 수찬, 御史大人, 戶部尙書, 한림원학사등을 거쳐 平章事에 승진, 守司空을 더하였다. 1134년(仁宗 12) 요승 妙淸의 西京遷都를 적극 반대하고 왕에게 극언하여 왕의 西幸을 중지케 하고 이듬해 妙淸, 趙匡, 柳屈(유담) 등이 서경에서 모반하자 부식은 원수가 되어 中軍將으로서 좌군장으로 金富儀(부식의 동생) 우군장으로 李周衍을 거느리고 서경을 칠때, 먼저 반란의 모의자인 鄭知常, 白壽翰, 金安을 우선 잡아 목을 베고 진격하자 서인들은 묘청, 유달들을 죽이고 항복, 조광이 또 반하므로 서경을 포위, 그이듬해 잔당을 소탕하고, 輪忠定 難靖國功臣의 호를 받고, 檢校太保守太尉, 門下侍中 判尙書吏部事, 監修國史上柱國 諡 太子太保에 임명되어 개신하였다.

그후 集賢殿大學士, 太子太師의 벼슬과 同德贊化功臣의 호를 더하였고, 1145년(仁宗 23) <三國史記> 50卷의 편찬을 끝냈다. 毅宗이 즉위하자 樂浪道開國侯로 봉했고, <仁宗實錄>을 편찬 송나라의 사신 路允迪이 왔을때 館伴으로서 그를 맞아들였고, 같이 왔던 徐兢이 그의 <高麗圖經>에다 富軾의 집안을 실어 송 황제에게 진상함으로써 富軾의 이름은 송나라에서도 유명하였다.

大覺國師의 비문을 지었고, 죽은뒤 仁宗묘정에 배향되었다. 문집 20卷이 있었으나 전하지 않는다.

<三國遺史>

三國遺事, 釋一然(高麗)著. [跋. 中宗 7年(1512)]

5卷2冊. 木版本(正德版)34.6×22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2.8×17.5cm. 有界. 10行, 1行21字. 版心: 大黑上下黑魚尾.

跋: 皇明正德壬申(1512)…李繼福.

卷末: …慶尙道觀察使…安溥[等 諸臣 銜名]

高麗 第25代 忠烈王(1275~1308)때의 名僧 普覺國師

一然(1206~1289)이 高句麗, 新羅, 百濟等 三國의 遺文軼事를 모으고, 그 關聯되는 事項에는 高麗中葉까지의 事實을 附記하고 있다. 三國史記와 더불어 우리나라 最高의 歷史書이다.

그런데 이것은 國家가 編纂한 正史가 아니며, 遺事를 모은것이라 端緒가 없는 허황한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正史에도 없는 重要한 史實이 收錄되어 있어 貴重한 資料가 되고있다.

內容은 新羅 高句麗 百濟 三國의 遺事를 모아 먼저 三國의 年表를 실고 紀異 興法 義解 神呪 感通 避隱 孝善의 항목으로 나누어 神異靈妙한 사적을 수록하였으며, 특히 佛敎에 關한 기록이 가장 많다. 그리고 三國外에 檀君朝鮮, 箕子朝鮮, 衛滿朝鮮, 三韓, 四郡, 樂浪, 帶方, 靺鞨, 渤海, 兩扶餘, 後百濟, 駕洛등의 일도 실려 있다.

<三國遺事目次>

第1卷

第1 王歷

第2 紀異 古朝鮮 王儉朝鮮 魏滿朝鮮

馬韓, 二府, 七十二國, 樂浪國, 北帶方, 南帶方, 靺鞨, 渤海, 尹西國, 五伽耶, 北扶餘, 東扶餘, 高句麗, 十韓, 百濟, 辰韓, 四節遊宅, 新羅始祖, 赫居世王, 第二 南解王, 第三 駕禮王, 第四 脫解王, 金閼智, 脫解王代, 延鳥郎, 細鳥女, 未鄒王, 竹葉軍, 奈勿王, 金堤上, 第十八寶聖王, 射琴匣, 智哲老王, 眞興王, 桃花女, 鼻荊郎, 天賜玉帶, 善德王知幾三事, 眞德王, 金庾信, 太宗春秋公, 長春郎, 罷郎.

第2卷

文虎王法敏, 萬波息笛, 孝昭王代, 竹旨郎, 聖德王, 水路夫人, 孝成王,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惠恭王, 元聖大王, 早雪, 興德王, 鸚, 神武大王, 閻長, 弓巴, 四十八景文大王, 處容郎, 望海寺眞聖女大王, 居陁知, 孝恭王, 景明王, 景哀王, 金傳大王, 南扶餘, 前百濟, 武王, 後百濟, 甄萱, 駕洛國記.

第3卷

第3 法興, 順道墜麗, 難陀關濟, 阿道基羅, 原宗興法, 厭體滅身法王禁殺, 寶藏奉老, 普德移庵.

第4 塔像

東京興輪寺金堂十聖, 迦葉佛宴坐石, 遼東城育王塔, 金官城婆娑石塔, 高麗靈塔寺, 皇龍寺九層塔, 皇龍寺鐘, 芬皇寺樂師, 奉德寺鐘, 靈妙寺木六,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生義寺石彌勒, 興輪寺壁畫普賢, 三所觀音, 衆生寺. 栢栗寺, 敏敬寺, 前後所將舍利,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芬皇寺金千手大悲, 盲兒得眼, 浴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魚山佛影, 臺山五萬眞身,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臺山精寺五類聖衆, 南月山, 天龍寺, 蓋藏寺彌陀殿. 伯殿寺石塔舍利, 靈鷲寺, 有德寺, 五臺山文殊寺石塔記.

第4卷

第5 義解

圓光西學, 寶壤梨木, 長志使錫, 歸竺諸師, 二惠同塵, 慈藏定律, 元曉不羈, 義湘傳敎, 蛇福木言, 眞表傳簡, 關東楓岳鉢淵蔽石記, 勝詮髑髏, 心地繼祖, 賢瑜珈, 海華嚴.

第5卷

第6 神呪

密本摧邪, 惠通降龍, 明朝神印.

第7 感通

仙桃聖母隨喜佛事, 郁面婢念佛西昇, 廣德, 嚴莊, 憬興遇聖, 眞身受供, 月明師率歌, 善律環生, 現感虎. 融天師誓星歌, 眞平王代, 正秀師救水女.

第8 避隱

朗智乘雲, 普賢樹, 緣會逃名, 文殊帖, 惠現求靜信忠掛冠, 包山二聖, 永才遇賊, 勿稽子, 迎如師, 希川山, 五比丘, 景德王代, 念佛師.

第9 孝善

眞定師孝善雙美, 大城孝二世父母, 神文王代. 向得舍知割股供親, 景德王代. 孫順埋兒, 興德王代. 貧女養母. 跋.

이 책은 三國史記에 빠진 古記의 記錄들을 원형대로 모아 놓은데에 그 特色과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檀君說話를 비롯하여 古代의 神話, 傳說, 民俗, 社會, 古語彙, 姓氏錄, 地名起源, 思想, 信仰, 逸事등을 대부분 金石 및 古籍의 인용과 소수의 見聞으로 썼는데 여기에 인용된 書籍은 당시의 典籍을 考證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것이다.

특히 <均如傳>에 11首가 수록되어 있을뿐, 다른 典籍에는 전하지 아니하는 鄉歌 14首가 실려있어 國文學 研究에도 없지 못할 자료가 된다.

安鼎福은 “이 책은 본래 佛家의 立敎之源流를 위하여 著作한 것이므로 間或 年代를 攷據할 수 있는 內容도 있으나 端緒가 없는 虛誕한 이야기기도 있다.

朝鮮王朝에 이르러 “通鑑”을 撰할 時에 여기에서 많

이 取錄한바 있으며 “輿地勝覽” 地名에도 많이 이書を 따왔다.

當時(高麗)에도 붓을 쥐고 記事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으나 대개의 경우 湮沒하여 傳하지 않고 이 書는 僞釋에서 傳存되어 巖穴之中에 藏在하였기 때문에 兵火속에서도 保存할 수 있었으니 後人에게 있어 그 遺存은 오히려 다행한 일이다.

東國(朝鮮)文獻의 泯沒이 이와같은 환경에 이른 것은 슬픈 일이다.”라 評하였다(增訂本備考藝文攷三史記).

(增補備考二四四卷一丁)

(大東韻府羣玉引用書目)

板 慶州府藏(東京雜記, 冊板條)

高麗本의 初刊本은 現在 전하는 것이 없고, 中宗7年(1512)에 慶州에서 再刊된 所謂 正德板本도 매우 희귀하다.

일제때 원형의 크기로 影印한 古典刊行會本과 조선사학회本 東京帝國大學 文科大學 史誌叢書本, 京都帝國大學 文學部叢書本, 啓明俱樂部刊本 外에 解放後의 三中堂 發行本이 流布되어 있으며 번역본도 몇 가지 있다.

三國遺事의 著者 一然 1206(희종 2)~1289(충렬왕 15)은 高麗後期의 高僧, 姓은 金氏 初名은 見明 字는 晦然, 後에 一然이라 고치다.

號는 無極, 陸庵, 賜號는 圓經冲照, 諡號는 普覺, 塔號는 靜照이다. 章山郡一慶山 사람, 彥弼의 아들 9세에 海陽 無量寺에서 중이 되어 禪學을 배우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佛典을 연구하여 22歲에 禪의 上庠科에 뽑히고 그 後부터 包山의 寶幢菴, 無住菴, 定林寺, 妙門菴에서 住持로 있으면서 禪觀을 탐구, 三重애사가 되고 41歲에 禪師, 54歲에 大禪師가 되었으며 56歲에 元宗의 부름을 받고 서울에 올라가 禪月寺 住持로 있으면서 멀리 牧牛 和尚의 佛法을 이었다. 59歲에 吾魚寺에 옮겨 佛經을 강론 했으며 63歲에 王命으로 高僧 100명을 모아 雲海寺에서 大藏落成會를 열었고 弘仁寺의 住持로 있기를 11년 重修하여 이름을 仁興이라 고치고 包山 기슭에 湧泉寺를 重建하고 佛日寺라 하였다. 72歲에 忠烈王의 부름을 받아 雲門寺의 住持가 되었고 78歲에 國師에 이르러 圓經冲照란 호를 받았다.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기 爲해 軍威 麟角寺에 옮겨 있으면서 두번 九山門都會를 열었으며 1289년 病이 나자 王에게 글을 남기고 平素와 다름없이 제자들과 문답을 나눈後 손으로 金剛印을 맺고 죽었다.

慶北軍威郡古老面華水洞 麟角寺에 塔과 碑石이 남아 있으며 行蹟碑가 雲門寺 東쪽 기슭에 있다.

<三國史節要>

三國史節要, 世祖(朝鮮)命編. [成宗13年(1482)] 14卷 7冊. 古活字本(乙亥字) 28.4×18.6cm.

四周單邊. 半葉匡廓: 27.1×15.2cm. 9行, 1行 17字. 注雙行. 版心: 上下內向黑魚尾.

卷首: 成化十二年丙申(1476)…李坡箋, 成化十二年丙申(1476)…徐居正 序.

所藏本: 卷 3~4, 11~12(2冊) 後寫補充本임.

이 책은 三國(新羅, 高句麗, 百濟)의 事蹟을 編年體로서 엮은 歷史書이다. 李朝 第7代王 世祖는 우리나라 三國時代의 歷史를 編年體로 엮을 것을 뜻하고, 곧 史局을 開設하여 그 編纂에 着手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내려와 第9代 成宗은 先志를 이어 받아 當時의 領敦寧府事 愍思愼, 中樞院右贊成 徐居正, 吏曹參判 李坡, 金季昌, 崔淑精에게 命하여 이를 編纂케 하였는바 同王 7年(1476) 丙申12월에 완성하였다.

그 內容은 新羅의 朴赫居世 元年(BC. 57)을 起點으로 하여 新羅, 高句麗, 百濟의 事歷을 時代別로 交互하여 新羅의 敬順王 9年((AD. 935) 即 新羅가 高麗에 統合될때 까지 992年間의 通史이다.

紀年은 新羅 初期의 19年間 即 高句麗가 建國하기 以前과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以後는 新羅를 中點으로 엮고 그 밑에 中國의 年紀를 分註하였다.

三國鼎立의 時代는 各國의 勢를 均衡있게 取扱하였고, 또한 紀事는 三國에 限하였으므로 그 書名을 通鑑이라 하지않고 節要라 하였다.

箋(撰) 序에는 15卷을 編纂하였다고 하였지만 目錄의 하거나, 現存本을 보건대 14卷으로 完結되어 있다. 그것은 卷首의 目錄을 合하여 15卷이라고 한것 같이 생각된다. 史體는 前述한 바와 같이 編年體인데 그 體裁를 보면 年代는 欄外에 于支로서 마치 인덱스와 같이 索引케 하고 行間에 먼저 中國의 年號를 墨刻하여 表示하고 그 밑에 小字雙行으로 新羅, 高句麗, 百濟의 順位로 王號와 紀年을 表示하고 있다. 그리고 紀事는 春夏秋冬 四季와 月別로 區分하여 記述하였다.

例: 晉義熙三年 新羅 實聖王六年 高句麗 廣開土王十六年 百濟 腆支王三年 春一月.

<三國史節要目錄>

第一卷 新羅

始祖 赫居世, 南解王, 儒理王(BC. 57~AD. 30) 高句麗

- 始祖 東明王, 瑠璃王, 大武神王(BC. 27~AD. 30)
百濟 (AD. 492~AD. 570)
- 始祖 溫祖王, 多婁王(BC. 18~AD. 30)
- 第二卷 新羅
儒理王, 脫解王, 婆娑王, 祇摩王, 逸聖王, 阿達王
(AD. 30~AD. 180)
高句麗
大武神王, 閔中王, 慕本王, 太祖王, 次太王, 新大王, 故國川王(AD. 30~AD. 180)
百濟
多婁王, 已婁王, 蓋婁王, 肖古王
(AD. 30~AD. 180)
- 第三卷 新羅
阿達王, 伐休王, 奈解王, 助賁王, 沾解王, 味鄒王, 儒禮王(AD. 182~AD. 292)
高句麗
故國川王, 山上王, 東川王, 中川王, 西川王, 烽上王(AD. 182~AD. 292)
百濟
肖古王, 仇首王, 沙伴王, 古爾王, 責稽王
(AD. 182~AD. 292)
- 第四卷 新羅
儒禮王, 基臨王, 訖解王, 奈勿王, 實聖王
(AD. 293~AD. 406)
高句麗
烽上王, 美川王, 故國原王, 小獸林王, 故國壤王, 廣開土王(AD. 293~AD. 406)
百濟
責稽王, 分西王, 比流王, 契王, 近肖古王, 近仇首王, 枕流王, 辰斯王, 阿莘王, 腆支王
(AD. 293~AD. 406)
- 第五卷 新羅
實聖王, 訖祇王, 慈悲王, 照智王
(AD. 407~AD. 491)
高句麗
廣開土王, 長壽王(AD. 407~AD. 491)
百濟
腆支王, 久雨辛王, 毗有王, 蓋鹵王, 文周王, 三斤王, 東城王(AD. 407~AD. 491)
- 第六卷 新羅
照智王, 法興王, 眞興王(AD. 492~AD. 570)
高句麗
文次王, 安藏王, 安原王, 陽原王, 平原王
(AD. 492~AD. 570)
百濟
東城王, 武寧王, 聖王, 威德王
- 第七卷 新羅
眞興王, 眞智王, 眞平王(AD. 571~AD. 614)
高句麗
平原王, 嬰陽王(AD. 571~AD. 614)
百濟
威德王, 惠王, 法王, 武王(AD. 571~AD. 614)
- 第八卷 新羅
眞平王, 善德王(AD. 615~AD. 645)
高句麗
嬰陽王, 建武王, 寶藏王(AD. 615~AD. 645)
百濟
武王, 義慈王(AD. 615~AD. 645)
- 第九卷 新羅
善德王, 眞德王, 太宗王, 文武王
(AD. 646~AD. 662)
高句麗
寶藏王(AD. 646~AD. 662)
百濟
義慈王(AD. 646~AD. 662)
- 第十卷 新羅
文武王(AD. 663~AD. 673)
高句麗
寶藏王(AD. 663~AE. 673)
- 第十一卷 新羅
神文王, 孝昭王, 聖德王, 孝成王, 景德王
(AD. 674~AD. 742)
- 第十二卷 新羅
景德王, 惠恭王, 宣德王, 元聖王
(AD. 743~AD. 798)
- 第十三卷 新羅
昭聖王, 哀藏王, 憲德王, 興德王, 僖康王, 閔哀王, 神武王, 文聖王, 憲安王, 景文王, 憲康王, 定康王, 眞聖王, 孝恭王, 附甄萱(AD. 779~AD. 900)
- 第十四卷 新羅
孝恭王, 神聖王, 景明王, 景哀王, 敬順王, 附甄萱, 弓裔(AD. 901~AD. 935)
- 이 책의 編纂을 始作한 年代는 確實치 않으나, 成宗 實錄과 同書의 序文 年紀에서 보건데 成宗 7年, 丙申(1476) 12월에 完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이 책이 印出된 것은 그보다 6年後인 成宗 13年, 壬寅(1482) 2月 印成이다. 그런데 이것은 世祖 元年(1455)에 鑄成한 乙亥字로서 印行한것이므로 當時에 印出된 乙亥字本의 研究에 있어서도 貴重한 資料가 될 것이다. (25面に 繼續)

장사치가 책 좀 팔려고 아참하면서 專稱이랍시고 부르는 司書長, 勿論 이와 같이 여러 층의 司書長들이 發令權者로 부터 發令을 받고 부르게 되면 그 以上 多幸한 일이 있겠는가만은 何等의 補職發令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司書長 云云하는 것은 그가 속해있는 機關이나 同僚들이 어찌 생각하겠으며 三者의 立場에서 생각해 보아도 넌센스라 아니할 수 없다. 더甚한 것은 職位 없는 사람에게 司書長, 司書主任 등으로 油印物에 까지 실리는 處事를 보면 또한 가소로운 것이다.

이와같이 쓰고보니 現在 몇개 大學圖書館에 勤務하고 계신 副館長級이나 課長級의 司書長에게는 失禮가 너무 많은 것 같다. 前記한 三職位는 管理層에 屬하며 그 館에서도 館長을 補佐해야 함은 勿論 職員指揮, 監督, 事務責任, 諸般計劃樹立 등의 責任을 지졌고 이 職位에 있는 사람은 司書資格이 반드시 있으며 相當한 專門知識을 가진 사람이라야 될 것이다.

㉔. 司書主任

司書主任이라 하면 一線의 監督層에 屬하며 前記한 바와같이 司書資格과 圖書館 各部署에서 相當한 經驗을 가진 老鍊한 사람이라야 될 것이다. 또 實施層과 항상 호흡을 같이 하며 上司와 部下와의 人和調整을 잘 control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될 것이다.

結 論

글을 쓰다 보니 넓혀 놓고 內容은 보잘 것 없이 되었

다. 우리 나라에서도 司書職의 專門性을 인정하여 資格證을 주고 있으니 大學圖書館 뿐만 아니라 여러 圖書館에서도 機構組織의 整備를 하고 適材를 고루 配置하여 館運營에 萬全을 期한다는 것은 直接 間接奉仕에 기를 올 공고히 하는 것이 될 것이다. 機構編成에는 技能職, 事務職, 財政職, 監查職 등 여러 分野에 따라 監督範圍가 다르긴 하나 적어도 4,5名 程度면 監督層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 人員 比例로 管理層도 생겨야 되겠고 現在 綜合大學圖書館인 경우 最少限 15名 以上の 職員이 있는 것으로 思料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4,5名의 主任과 2名 以上の 課長, 1名의 副館長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國立大學圖書館인 경우 같은 綜合大學이면서도 서울大學附屬圖書館에만 三·四課 制度를 만들지 말고 地方의 國立大學圖書館에도 적어도 二課 程度의 機構를 마련해 주면 하는 마음은 筆者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왜 그런가 하니 職員은 15名 以上을 確保하고 그 機構編成은 보잘 것 없고 前記한 바와 같이 司書長이 여기에도 있으며, 이 司書長의 公認職位는 보잘 것 없으며 이와 같이 되면 그 大學의 他部處와의 業務連絡 關係等 말못할 隘路가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또한 一部 單科大學인 경우에도 庶務나 經理等에는 適當 課制度가 있는 반면 職員數로는 오히려 많은데 課制度가 없는 것은 消費性만 있는 곳에 무슨 課가 必要한가 하는 따위의 大學經營者들의 思考方式이 하루 바빠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잔질하다.

(19面에서 繼續)

이 책은 本來 弘文館의 藏書였던 것이나 1592年 壬辰倭亂時에 弘文館藏書中 燒失되고 남은 一部の 書籍이(朝廷의 一時避難處인) 海州行宮에 移送된바 있는데 이는 其中의 한 책이다. 그런데 이 때에 全州史庫本도 海路를 通하여 海州에 移送되어 왔기때문에 弘文館의 藏書는 全州史庫本에 숨겨졌다.

그리하여 宣祖 27年에는 海州史庫에, 宣祖 29年에는 江華府史庫에, 宣祖 37年에는 妙春香山史庫에 宣祖 36年에는 다시 江華府史庫에, 朝鮮王朝實錄과 함께 移轉되었다가 1910年 奎章閣藏書로 編入되었다.

當時의 史庫形止案에 보면, 「三國史節要」는 7冊完秩本인 것으로 記錄되어 있으나 現存本中 卷3~4(第2册) 卷 11~17(第6册) 2冊은 後에 筆寫 補充한 것이다.

盧思慎 1427(世宗 9)~1498(연산군 4)은 李朝 燕山

君씨의 재상이다. 字는 子胖, 號는 葆眞齋, 天隱堂, 諡號는 文匡, 本官은 坡州, 物載의 아들로써 1453년에 文科에 급제, 集賢殿博士, 知平, 文學에 이르고 世祖 때에 都承旨를 거쳐 戶曹判書로 있을 때 王命으로 <經國大典>中的 戶典을 맡아 편찬하고 拔英, 登俊 양과에 연이어 급제하였다.

睿宗 때 翊戴功臣이 되고 成宗 때 佐理功臣이 되어 吏曹判書, 右議政, 左議政 등을 역임한후 1494年(成宗 25年)에는 府院君에 봉군, 燕山君 初에 領議政에 올랐다.

앞서 成宗 即位 初에 臺諫의 고문 대학생의 유배 등을 모두 찬성하여 士林들의 원한을 샀으나 戊午史禍(1498)가 일어나 尹弼商, 柳子光, 成俊 등이 청렴한 선비를 싫어하여 이 機會에 일망타진 하려했으나 思愼이 홀로 이들을 한사코 구출하여 많은 선비들을 살렸다.

參考文獻: 燕山君日記, 海東名臣錄.